

# 경남지역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지역사회 참여도는? <sup>1)</sup>

Vol. 38  
 2024. 11



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인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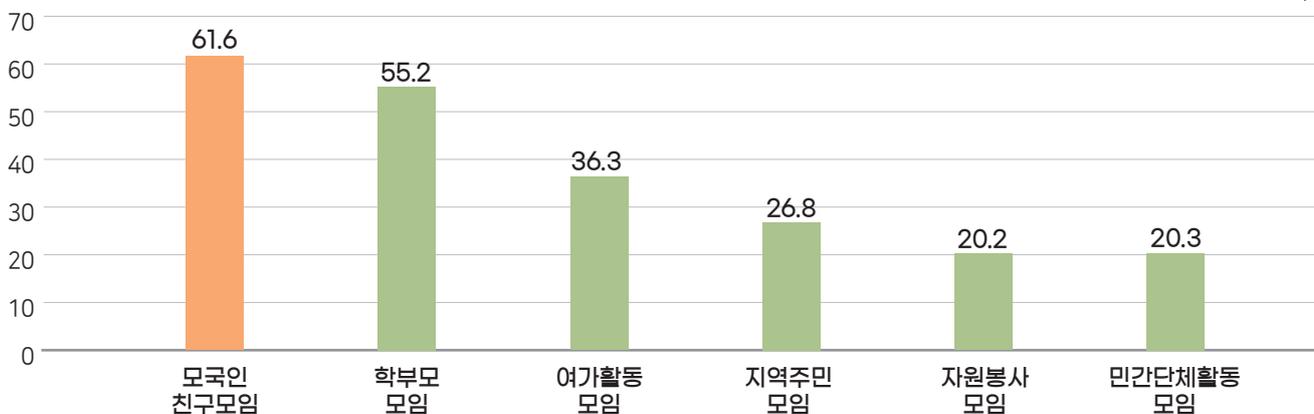
##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지역사회 참여도는

이민자의 초기 정착의 지난한 과정을 넘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류사회에 진입하여 살아가는 '적응 수준'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음

## 1.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

| 경남지역 결혼이민자·귀화자는 지역사회 모임 중 모국인 친구 모임 참여자가 61.6%로 가장 높고, 다음이 학부모 모임 55.2%, 여가활동 모임 36.3%, 지역주민모임 26.8%, 민간단체활동 20.3%, 자원봉사활동 20.2%의 순으로 나타남

지역사회 활동 참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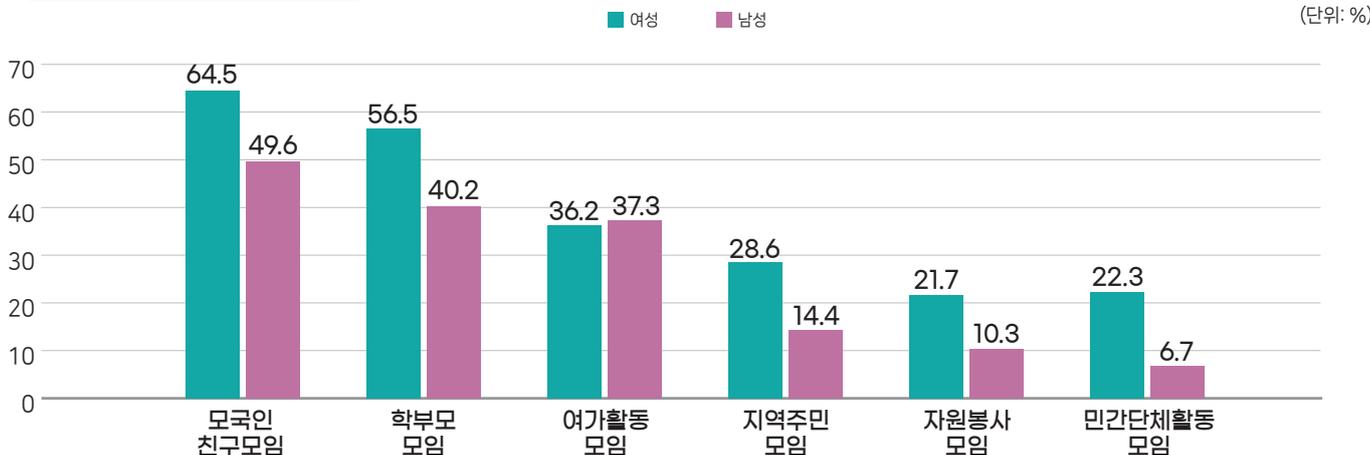


## 2.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성별 비교

| 결혼이민자·귀화자 성별로 지역사회 활동참여도를 비교한 결과 여가활동모임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사회 활동참여도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

| 여성과 남성의 참여도 차이는 학부모모임 16.3%p, 민간단체활동모임 15.6%p, 모국인 친구모임 14.9%p, 지역주민모임 14.2%p, 자원봉사모임 11.4%p의 차이로 여성 참여도가 더 높음

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성별 비교



1) 출처 : 이인숙·이혜림·최나현(2023). 20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.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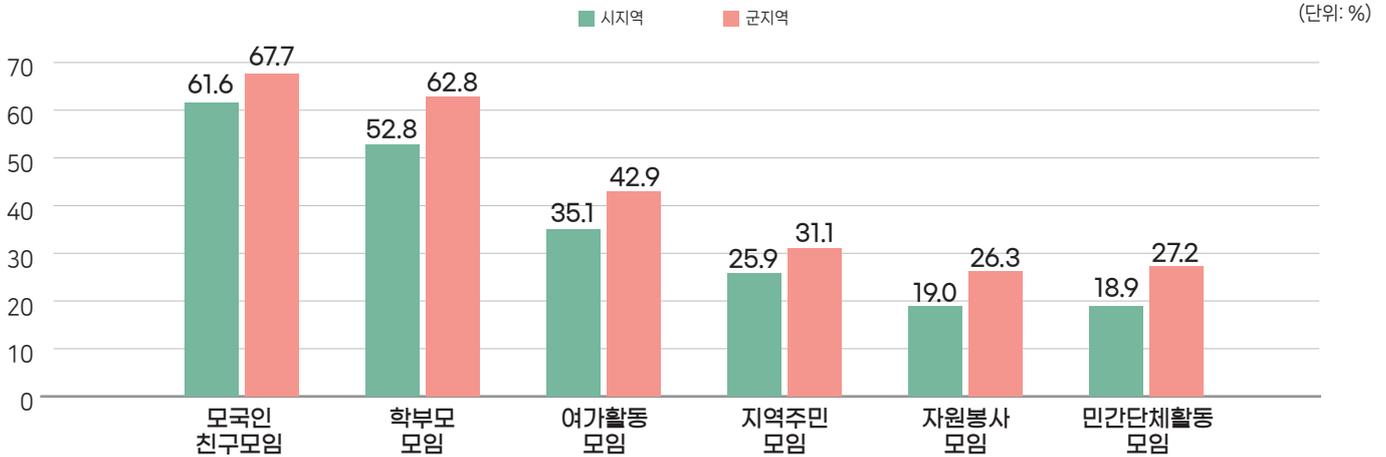
주) 설문조사 대상자는 경남 시군 거주 결혼이민자·귀화자 800명으로 여성 697명(87.1%), 남성 103명(12.9%), 시지역 669명(83.7%), 군지역 131명(16.3%), 가족센터 이용자 532명(66.6%), 비이용자 267명(33.4%)으로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41%p임.

### 3.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시·군지역별 비교

| 결혼이민자·귀화자가 거주하는 시·군지역별로 지역사회 활동참여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사회 활동참여도가 군지역이 시지역보다 높았음

| 군지역과 시지역 참여도 차이는 학부모모임 10.0%p, 민간단체활동모임 8.36%p, 여가활동모임 7.8%p, 자원봉사모임 7.3%p, 모국인친구모임 6.1%p, 지역주민모임 5.2%p의 차이로 군지역 참여도가 더 높음

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시·군별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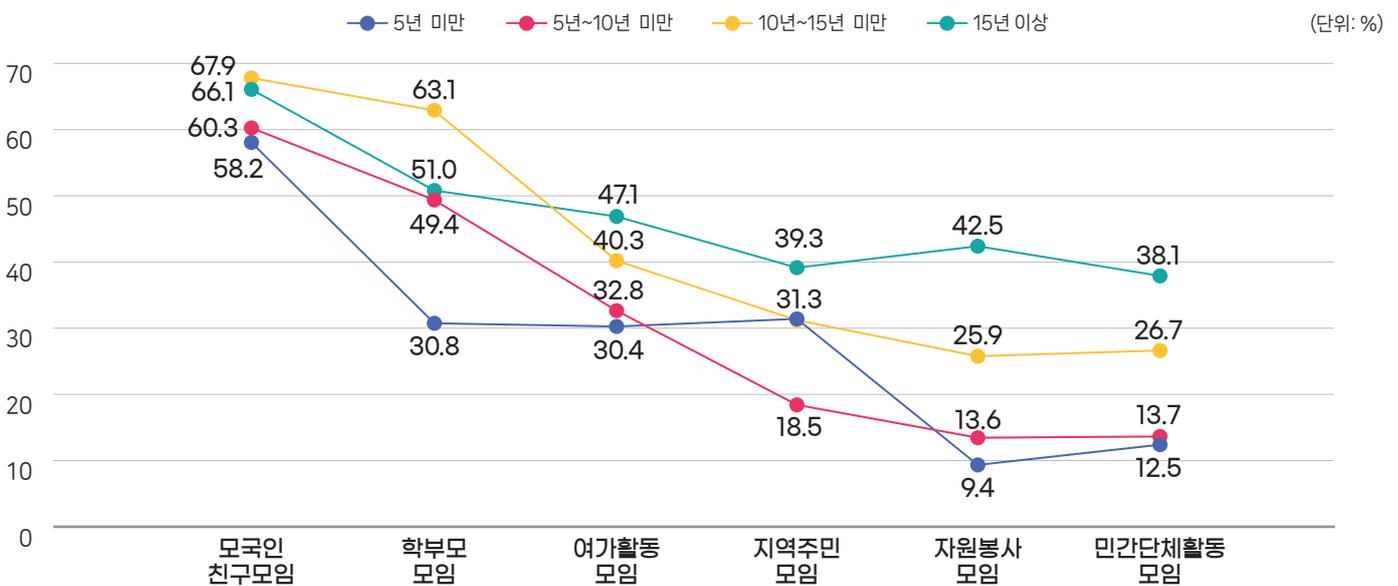


### 4.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한국 체류기간별 비교

|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한국 체류기간에 따른 지역사회 활동참여도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체류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| 다만, 5년 미만 체류자와 15년 이상 체류자 간의 참여도가 가장 높아진 활동은 자원봉사모임(33.1%p)과 민간단체활동모임(25.6%p)으로 참여도가 향상되었고, 모국인친구모임은 체류기간에 따른 변화가 가장 적었으며(7.9%p), 그 밖에 지역주민모임 참여도 향상(8.0%p)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

지역사회 활동참여도 체류기간별 비교



1) 출처 : 이민숙·이혜림·최나현(2023). 20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.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.

주) 설문조사 대상자는 경남 시군 거주 결혼이민자·귀화자 800명으로 여성 697명(87.1%), 남성 103명(12.9%), 시지역 669명(83.7%), 군지역 131명(16.3%), 가족센터 이용자 532명(66.6%), 비이용자 267명(33.4%)으로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41%p임.